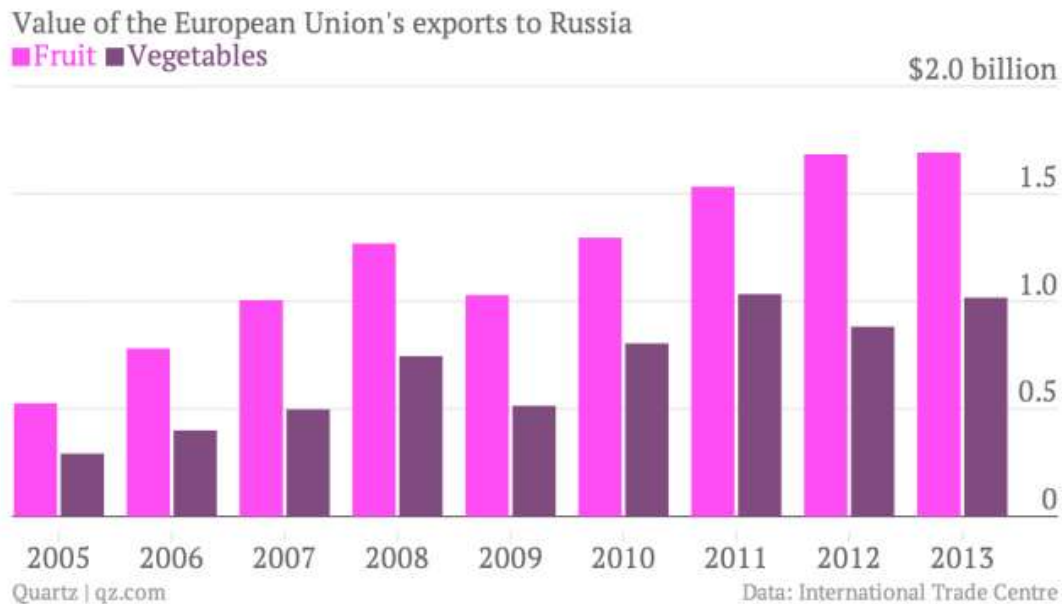


유럽연합, 대 러시아 식품 수출 금지, 농가 지원 4 억유로 투입예정

지난 8 월 7 일, 러시아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한 유럽연합과 미국, 호주, 캐나다, 노르웨이, 호주 등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발표했다.

러시아는 유럽연합 과일 수출의 28%, 채소 수출의 21%를 차지하는 제 2 의 수출국으로,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은 118 억유로 이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.



금지 품목에는 소고기, 돼지고기, 조류고기, 생선, 치즈, 우유, 채소와 과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. 여기에는 어린이용 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.

Parismatch 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발틱해 인근의 국가들, 폴란드, 프랑스다. 특히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사과 수출국으로, 생산량의 2/3 이 러시아로 수출된다. 2013 년에 2 억 7 천 유로를 수출했다. 이에 폴란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사과를 먹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. 사과 생산자들과 산업을 지키고자 내수시장으로 전환하자는 뜻이다.

러시아는 영미권과 유럽연합의 식품 수입이 금지에 따라 브라질, 칠레, 에콰도르, 멕시코 등 중남미로 식품 공급처를 전향할 예정이다.

유럽 국가들은 수출국인 유럽연합 뿐만아니라 러시아 또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등 장기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했다.

유럽연합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해 4 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.

참고 : <http://www.parismatch.com/Actu/Economie/Embargo-La-Russie-veut-porter-un-coup-a-l-agriculture-europeenne-579361>

<http://www.forbes.com/sites/kenrapoza/2014/08/10/putins-european-food-ban-bad-for-russia-good-for-brazil/>